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오늘도 안전, 내일도 안전

경남기업, 춘천-동홍천간 고속도로건설공사(제1공구) 현장
현장소장 조창현

『조금은 지쳐있었나봐 쫓기는 듯한 내 생활.....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오월의 내 사랑이 숨 쉬는 곳.....』

춘천 가는 기차의 노랫말처럼 춘천은 나에게 있어 추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아픔이 있었던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늘 춘천 가는 46번 국도를 지날 때면 학창시절 추억에 잠기게 된다. 오늘은 어제부터 내리는 비 때문인지 중도로 MT를 떠났던 대학 시절이 떠오른다. 비를 맞으며 밤새 사랑과 우정을 이야기 했던 그때 그 시절 친구들이 더욱 그리운다. 어느덧 춘천 팔봉산 기슭을 넘어 꼬불꼬불한 국도 5호선을 따라 한참을 내달리고 있다 보니 팔봉산 골짜기에 우뚝 서있는 경남기업 “춘천-동홍천간 고속도로 제1공구”(소장 조창현) 현장의 교각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며 춘천과 동홍천 사이를 잇고 있는 이 곳 현장사무실 입구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제법 규모를 자랑하는 체험 교육장이다.

각종 안전시설을 비롯해 전기시설물 및 안전용구가 전시되어 있고, 작업 발판을 종류별로 설치하여 무엇이 안전한지 느낄 수 있도록 아기자기하게 구비된 체험장에서 이 곳 현장의 안전수준을 짐작케 한다.

추락재해 예방에 대응은 없다

4.5km의 현장에는 터널과 많은 교량이 오늘도 한창 시공 중에 있다.

팔봉산 기슭에 자리한 지역적 현장 특성 때문인지 교량 상판에서는 몸의 균형을 잡기가 힘들 정도의 바람이 세계 분다.





▲ 조 창 현 현장소장

“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지도자라도 그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독불장군에 불과합니다. 안전 또한 혼자 가 아닌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켜나갈 때 무재해 준공이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

그런만큼 추락의 위험이 높다.

안전관리자들도 각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다르다. 나중수 안전과장은 어느 현장을 가든 건설현장 재해의 주범인 추락재해를 중점 관리한다.

그래서 일까? 이곳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워킹타워는 다른 현장과 사뭇 다르다.

워킹타워의 계단대를 받침대 형식으로 잡아주는 정도의 설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바닥 기초에 버림콘크리트를 다져 워킹타워 기초를 확고히 고정시키는가 하면 발판에는 철근이나 중량물의 적재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은 아침조회에서부터 시작된다.

위험작업에 대해 지적확인을 하고, 근로자는 별도 교육이 이루어진 이후에 현장에 투입되는 것도 아침에 시작되고, 크레인 작업, 강재품 조립 작업 팀장과 팀원을 작업계획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침 조회에서다.

현장 사무실 입구에 있는 안전체험장 말고도 현장 곳곳에 낙하 시험 시설물을 설치하여 신규채용자 외 모든 근로자들이 추락·낙하가 얼마나 위험한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추락재해에 대한 예방활동에는 대응하는 법이 없다. 항상 빈틈 없이 철저한 예방책이 있을 뿐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안전

현장을 진입하는 입구는 비포장도로지만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굴곡 없는 평탄한 도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주변은 잘 정돈된 자재와 보호구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작업자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현장 사무실 입구에는 6월 30일까지 “무재해 90일 달성 특별강조주간”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장마철을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상반기 무재해를 달성하자는 안전활동이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신규채용자와 작업자에게 교육을 이수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파란조끼를 지급하여 착용케 함으로써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작업자를 쉽게 색출하는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직원들은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요일별 관리자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전직원 안전관리자, 무비카메라의 현장에 설치로 본사, 사무실, 소장실, 사업소, 감독실 등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오픈 안전관리 등 보여주는 안전, 무의미하게 참여하는 안전이 아닌 체계적인 안전으로 실효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나된 우리, 무재해 꿈 실현

강압적이고 수직 하달식의 안전은 이곳 현장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모두가 가족처럼 친근감이 배어있는 것이 이곳 현장이다.

“예전의 강압적인 현장관리는 오히려 반발감을 불러 일으켜 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은 나이로 봐서도 저의 형님뻘입니다. 마을을 열고 먼저 다가갈 때 비로서 근로자들도 마음을 열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이 있을 때 무재해 무사고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중수 안전과장의 말에서 강압적인 행위가 현장에서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알게 한다.

협력업체 직원과 작업자들에게 경남기업 직원 숙소와 동등한 수준의 숙소와 시설을 마련해주고, 매

월 시행되는 족구대회, 원하는 날 언제나 소풍가듯 인근 자연과 함께하는 삼겹살 Day 등 하나로 화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장학금 지급, 주변 마을 대청소, 경로잔치, 화단 가꾸기 등 환경과 안전으로 직원, 작업자, 인근 주민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무재해 경남기업 춘천-동홍천간 고속도로 제1공구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램입니다.”라고 굳은 어조로 말하는 조창현 소장, 그의 바램처럼 재해없는 현장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 준공하는 그날까지 지속되길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